

非文연대 꽃힌 결선투표…그 효과는?

등록 2012.07.15 05:00:00 | 수정 2016.12.28 00:57:50



【서울=뉴스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선후보경선 독주를 견제하는 이른바 '비(非) 문재인' 주자들이 결선투표제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총대를 멘 쪽은 문 고문을 뒤쫓으며 2위 자리를 놓고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다.

두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열린 당 경선준비기획단과의 간담회에서 당내 대선후보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음달 25일 시작돼 9월23일 끝나는 순회경선에서 단번에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9월30일) 후 1·2등간 결선투표를 또 한 번 치르자는 것이다.

손학규 고문 측 조정식 의원은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는 결선투표는 후보의 정당성 및 대표성 확보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국민 관심 증대로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두관 전 지사 측 전현희 대변인은 "과반 이하의 지지를 받고 본선에 오르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밖에 정세균·김영환·조경태 등 타 후보들도 결선투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고문 선대본은 ▲잡은 선거로 인한 당 안팎의 피로감 ▲당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 ▲천문학적 비용과 촉박한 일정 등 현실적인 한계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결선투표제의 효과는?

이처럼 문재인 고문과 비 문재인 진영이 대립하는 가운데 결선투표제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선투표란 당내 경선 결과 1등 후보가 과반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가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결선투표를 치를 경우 선거인단 유효투표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비로소 후보로 확정되는 만큼 후보의 위상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 혼전 끝에 30~40% 득표율 만으로 당선된 후보보다 5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더 강력한 후보를 배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상대적으로 젊고 열세로 평가되는 후보들이 선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1차 투표에서 2위에 그친 후보가 타 후보들과 연대하면 역전의 가능성이 열린다.

실제로 1970년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 1차투표에선 예상대로 김영삼 후보가 1위에 올랐지만 결선투표에선 1차투표 3위 이철승 후보의 표를 흡수한 김대중 후보가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이 때문에 당내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고문은 결선투표를 탐탁찮아 할 수밖에 없다. 선불리 결선투표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자칫 역전을 허용해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지율 면에서 문 고문에게 10%p 이상 뒤져있는 김두관 전 지사와 손학규 고문 등은 역전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결선투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문재인, 비 문재인 진영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결선투표제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발표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주주의'란 제목의 논고에서 "결선투표 과정을 통해 후보자간 정책교환과 정책연대가 이뤄진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후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나아가 형식적인 이미지선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결선투표의 장점을 소개했다.

또 "2차투표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 사이의 정치연합을 촉진함으로써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차단하며 정치적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결선투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우려할 것은 결선투표가 정당 지도부나 후보자간 정치적 거래의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당의 개방성과 투명성, 참여와 민주성이 확고하게 전제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결선투표제에 동의한다 해도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며 "따라서 가장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당내 경선규칙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쌍두마차 이해찬 대표와 김한길 최고위원 역시 결선투표의 장단점을 간파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선거 투표일을 앞둔 지난 5월말 MBC 100분토론에서 결선투표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결선투표를 통해 정치적인 정당성을 높여가는 과정은 최후의 당선자에게 힘을 모아주는 기능을 한다"면서도 "다만 결선투표는 역선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역선택이라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당시 "역동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결선투표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전국을 순회해서 경선을 한번 치른 뒤에 결선투표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은 15일까지 각 후보 선대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단과 함께 검토를 마친 이해찬 대표는 오는 16일 경선에 나설 후보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경선규칙 최종조율에 나선다.

daer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